



국제와이즈멘 전주행복클럽, 사랑의 봉사기금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주지방 전주행복클럽 김명숙 회장은 지난달 26일 회원들과 함께 마더요양원, 전주영아원, 금산백련마을·어르신세상복지센터 등을 찾아 사랑의 봉사기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봉사기금은 관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4곳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전주행복클럽 김명숙 회장은 전달식에서 "새로운 시작 화합과 성장하는 클럽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봉사에 전념하겠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주지방 전주행복클럽은 2021년 7월 26일 창단 이래 더높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정읍 소성면, 취약계층 대상 삼계탕 나눔

정읍시 소성면은 지난달 30일 300여명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참총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가 후원하고 면 새마을부녀회와 이장협의회가 협력해 진행됐다. 운영소 부녀회장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숲 획득'

김제 성덕면, 오예진 선수 조부모 축하 방문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과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의 조부모를 직접 방문해 축하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등부 9개 대회에서 전관왕을 달성하며 사격계 꿈나무로 각광받던 오예진 선수는 지난 28일 일요일 펼쳐진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243.2점을 쏘며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다. 문순 성덕면장은 성덕면에 거주 중인 오 선수의 조부모를 방문해 "여자 공기권총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자랑스러운 오예진 선수의 멋진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은 "오 선수의 조부모가 성덕면에 거주하고 계셔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김제 시민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리며 오 선수와 조부모님의 인성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산면 복지기동대, LED등기구 무상 교체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장민호)가 지난달 31일 상계리 명산마을, 금암마을 저소득층 37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LED 등기구 교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대상자 A 어르신은 "조명이 어두워도 등을 교체하지 못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방과 방이 밝아져 기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해준 복지기동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LED 등기구 무상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형광등에 비해 전기요금을 30~50% 낮춰주고 수명도 3배 이상 길어 쉽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에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을 위한 봉사활동, 삶의 활력소"

박영숙 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 회장

정관장 부안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숙(57, 여, 사진)씨는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 협의회장으로 봉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참 봉사인이다. 최근 박 회장은 가게 앞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었다. 무슨 옥수수냐고 물어보았더니 적십자사 회원이 옥수수 농사를 지어 장학금으로 내놓고자 하는데 판로가 없다고 하며 애로사항을 호소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서 이는 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봉사활동에 자신의 장기인 영업활동을 접목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특이한 이력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박 회장은 20대 초반부터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30년이 훨씬 넘게 살아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다.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 회장은 22년부터 맡아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장부라고 아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3년 전에는 해당화 로타리 부안 지역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했는데 무엇보다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뜻을 두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도움 요청이 오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어떻게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본인에게는 정말 피곤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만호 기자



남원 덕과면, 돌봄 어르신 자택 비상연락망 부착

남원시 덕과면(면장 성월계)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돌봄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시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제작해 대상자 자택에 부착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위급 시 혼란에 빠져 긴급신고 전화번호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이에 덕과면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소방서, 마을 이장 연락처를 제공, 응급 시 관계기관이나 이웃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락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성월계 덕과면장은 "비상연락망 지원 사업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나무 향기 맡으며 별구경'... 도농교류 새 모델 제시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성송별밤캠프'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달 27~28일(1박2일) 진행한 성송별밤캠프가 도농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성송별밤캠프는 고창군 성송면 '성송관광행복센터'에서 도농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과 경기, 충청권 등 전국각지의 도시민 11가족 모두 39명이 참여했다. 성송면 농약단의 환영공연을 시작으로 참여가족 소개, 축동마을 어르신에게 듣는 마을 유래와 고인돌 이야기, 고구마 수확 등 농촌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장애물 없이 탁 트인 논밭과 동네 가득한 흙냄새, 아궁이에 불 지펴 해먹는 밥상, 저녁에는 쏟아질 듯 반짝거리는 별을 느끼며 고창만의 매력적인 농촌관광에 빠져들었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는 "고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올해 처음 선보인 도농교류 '성송별밤캠프'는 더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관왕에 빛나는 고창군에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이루다솔루션과 협약 체결

보호대상자 지원·일자리 창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지난 달 31일 이루다솔루션(대표 이승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승준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단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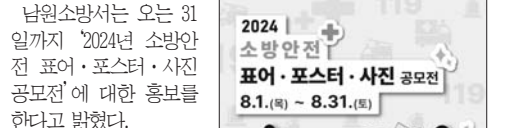
황경주 지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의 노력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에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 30일까지 폭염 안전지킴이 운영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폭염 취약 대상의 온열질환 피해 저감을 위한 폭염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은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층 및 야외 작업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독거노인 대상 돌봄활동 등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해당되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의용소방대원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폭염 예방수칙 교육을 진행하며,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2시 ~ 17시)는 논·밭이나 작업장 등을 순찰하며 얼음물 등을 배부한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폭염 시 주의사항 당부와 수시로 안부 및 건강체크 등을 진행한다. 공교로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순창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순창군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안전 포어 등 공모전 홍보



남원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소방안전 포어·포스터·사진 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재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포어(캘리그래피로 표현), 포스터(모션포스터 포함), 사진 3개 분야로, 주제는 소방안전문화(불조심) 확산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작품 접수는 31일 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https://fire.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온라인 심사와 공개검정,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10월 7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각 분야 우수작품은 15점의 상장과 총 12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포함, 연중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훈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남원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여름철 벌쏘임 사고 주의 당부

임실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벌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야외활동 시 벌쏘임 주의를 당부했다. 임실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올해 상반기 벌집제거 출동 건수는 1,20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했다. 벌쏘임에 의한 피해는 폭염 시기인 7~9월에 집중돼 있으며, 산·논밭 등에서 벌초 및 벌집 작업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만약 벌집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체를 낮추어 천천히 이동하되, 벌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고 그 자리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벌쏘임 예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 사용 자제 △탄산음료 및 달콤한 음료 자제 △흰색 계열의 긴 소매옷 착용 등이 있으며, 대처법으로는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화부를 깨끗한 물로 씻고, 병정원을 해주면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신체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청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원들이 각종 도급·영역·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이 맡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발주공사 및 도급자로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다루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nd subscription rates.